

광주 어등대교 이음장치 한달만에 또 파손 '불안'

2022년 2차레 등 4차레 사고 발생 높은 하중·고속 통행 차량 탓 마모 "너무 자주 파손"…안전사고 우려 시 4개 차로 전체 이음장치 교체

광주 광산구와 서구를 잇는 어등대교의 교량 이음장치가 한 달 만에 또 파손됐다.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어등대교는 2022년 2차레 파손된 데 이어 지난달과 이날까지 총 4차례의 이음장치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오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 시정 방향 2차로의 신축(伸縮) 이음장치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광주시에 접수됐다. 신축 이음장치란 교량 상판끼리 연결하는 톱니바퀴 모양의 구조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판을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긴급 보수에 나섰지만, 공사는 오전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찾은 어등대교 현장에서는 파손된 이음장치 보수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신호수와 방향지시 차량이 배치돼 도로 통제에 나서면서 다행히 출

근길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보수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행했다.

광주시 구조물관리팀과 경찰의 현장 확인 결과 사고 원인은 반복적인 하중과 고속 통행 차량 등의 영향으로 마모 현상이 나타나 신축 이음장치가 탈락하고 용접부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어등대교는 광주의 주요도로인 무진대로의 460m 남짓한 교량 구간으로 각종 도로 진입 구간이 연결돼 있어 평소에도 병목·정체 현상이 잦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중이 크고 고속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이음장치의 마모가 진행돼 파손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이번 사고 지점과 반대 방향인 광산구 무진대로 운수IC 방향 인근 2차로에서도 신축 이음장치가 파손돼 차로 통제와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22년 연이어 2차례 이음새가 파손돼 보수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첫번째 파손은 11월16일 교량 연결장치 주변의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발생했다.

이어 한달이 채 안된 12월1일 신축 이음장치 일부가 다시 떨어져 나갔다.

어등대교의 이음장치 파손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평소 출·퇴근길에 어등대교를 지나는 김충완(32)씨는 "벌써 4번째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자주 파손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지난번에는 (이음)장치가 파손돼 파편이 튀어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임시 보수로는 파손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다음 달 6일까지 1억 6000만원을 들여 어등대교 운수IC 방면 4개 차로 전체 이음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달 파손으로 임시 보수한 차선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내년 1월 시정방면 구간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시되며 1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일부 구간은 통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대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파손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음장치를 빨리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복구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aeong@jinilbo.com



21일 오전 2시 30분께 어등대교 광주시정 방향 2차로의 신축 이음장치가 파손돼 해당 차로를 통제하고 광주시 관계자들이 긴급 공사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1심 무죄 7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28억 채무' 1심 대가성 간주 항소심, 사기 편취액 판단

지인에게 수습역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월 사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34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인 줄 모르고 참여했다가 계약 후 이를 알았다.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000만원은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땅의 매매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순자산이 100억원을 넘어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혐의 중 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28억 7000만원의 피해금이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정서에도 '매매대금 차용' 목적이었고 기재돼 있고 사건 관계인의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 A씨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한다. 빌린 돈 중 28억 7000만원은 부동산 매매 대금에 쓰지 않고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된 전직 경찰, 항소심서 3년 구형

1심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검찰, 원심과 같은 형 구형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던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공유·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해당 사안들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지법 "심장 수술 후 '식물인간'... 병원 책임"

"경과 살피지 못해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도 위반...총 2억 지급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해파린 재활성화라는 부작용으로 20대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해당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여성 환자 A씨와 A씨의 가족 2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에게 1억 6000만원과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2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후유증으로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호흡과 소화 기능은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권장량을 초과해 해파린을 투여했고 수술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해파린 재활성화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A씨가 심정지를 일으켰고 뇌손상 확대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며 "수술 전 해파린 재활성화에 대한 위험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받은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은 인공심폐기 사용 시 체내 혈전 발생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로 해파린을 투여하며 부작용

으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화 작용 후에도 해파린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해파린 재활성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A씨가 해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의료진이 원고 가족들에게 설명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은 인정되나 해파린 재활성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의료진 설명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주말 다시 영하권 추위 돌입...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영하 2도까지 떨어져

광주·전남 지역에 이어지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주말에 영하권 추위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1~영상 6도, 낮 최고기온 12~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23일에는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으며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일교차가 크게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예정이다.

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정성아 기자

광주서 '뺑소니 사고' 20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별 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격 여파로 피해 승용차가 앞에 있던 또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6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소재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지난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았다.

정성아 기자